

態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宿舎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山間住民의 珍奇한 風俗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에 形態를 따라 細環을 無數히 장식한 女子, 목걸이를 달은 男子, 칼을 차고 바지는 입지 않고 앞만 가린 男子... 그들은 바꾸니에 짐을 넣어 이마에 끈을 걸고 있었습니다.

一月二十九日 豫定을 당겨서 印度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再入國의 수속도 이곳 印度大使館에서 前日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아침 시간을 利用하여 과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宿舎房에서 아침해에 불어가는 白雪의 히마라야 連峰을 볼 수 있었던 것과 과탄길에서 다시 壯嚴한 山容을 對할 수 있었던 것은 감명깊었습니다. 히마라야山脈을 眺望할 수 있는 곳이 멀지 않다고 宿舎의 支配人이 勸告하였으나 貸切의 車費가 비싸기에 斷念하였는데 잠시나마 山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과탄에서는 人力車로 一시간, 주로 寺院을 돌아 보았습니다. 市場을 中心으로 배치되어 있는 힌두祠院(寫眞下)에서는 아침의 禮拜가 進行되고 있었습니다. 木塼의 高樓와 石造建物이 隣接하고 있는데 細部의 彫飾은 모두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 골목길을 들어서 마하보다寺院에 이르러 테라코타로 쌓아 올린 高塔形寺院을 보았는데 印度佛陀伽耶의 大塔을 따르고 있는 樣式이 注目되었습니다. 이 建物은 近年의 地霜으로 崩壞되었던 것을 再建하였다고 하는데 印度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답고 貴重한 遺構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팔은 北印과의 깊은 關係에서 古代의 佛敎的 遺物과 遺法을 간직하고 있기는 하나 印度에서와 같이 佛敎는 衰頹하였기에 그 후의 宗敎와 美術의 主潮는 힌두敎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네팔과 西藏이나 元代佛敎의 交流를 — 나아가 元代와 高麗의 關係를 — 더듬게 하여 줌이 있을 것입니다. (佛陀聖蹟의 하나인 誕生地를 비니가 네팔國內에 있다는 地理的 條件은 네팔과 印度와의 佛敎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古代의 佛塔이 保存되었고 木塼의 高樓形祠院이 — 現存하는 것은 거의 힌두敎에 속한다 — 特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의 訪問은 불과 二日間이었으나 처음 찾은 印度의 隣接國으로서 또 이번 旅行의 北端으로서 印象깊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十二時半 離陸한 印度航空機는 一시간안에 北印과 트나에 安着하였습니다. 入國手續이 간단히 끝나고 市内에 들어와 考古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뉴델리의 韓總領事가 보내준 八通의 書信을 받고 춤이라도 출듯 즐거워 하였습니다. 구름하던 짐소식이 들어 있었으며 金館長과 同人 등 고마운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니다. 먼客地에서 出國후 四十日만에 처음으로 접하는 반가운 소식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면서 호못한 감회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 石窟庵通信 (十一)

鄭 明 鎬

#### 一、工事關係

(1) 一重窟

前室에 덮혀 있던 假屋蓋를 解體하고 扉道入口와 前室左右壁에 保護壁를 敷었다. 窟外 一重窟 基礎部 整理作業중 舊排水路 밑에서 日帝重修時 設置한 排水鉛管이 露出되었다. (7.15) 窟後壁 突出岩盤(7.15)과 아치 위의 築石除去 開始(7.25) 鐵筋加工(7.15) 骨材(栗石·川砂) 運搬(7.19) 鐵塔建立(7.25) 窟北排水路底面과 一重窟 穹크리트基礎(8.3)와 配筋着手(8.3) 窟內와 一重窟間을 通할 珉트掘下作業開始(7.23) 이것은 氣象條件의 調節을 爲한 施設이다.

#### (2) 前室木造架構

承認된 設計圖面에 의하여 十分之二의 模型 七月十七日에 着手 八月三日에 完成을 보았으며 監督部와 林泉 李光奎氏가 檢討中임.

#### 二、調査關係

七月八日 禮山修德寺를 調査한데 이어 孟仁在, 金周泰, 申榮勳諸氏는 江原道地方을 踏査하였다.

- 7.11 서울 → 洪城 → 杆城 → 東草 →
  - 7.12 襄陽(洛山寺 → 虹峴 · 銅鐘) → 江陵 → 烏竹軒 → 海雲亭 → 客舍門 → 月精寺
  - 7.13 月精寺(石塔 · 新造寶蓋) → 橫城(郡廳後庭石造物) → 서울
- 멤버를 바꾸어 孟仁在 · 鄭明鎬 · 申榮勳 諸氏는
- 7.16 서울 → 稷山(弘慶奉先寺碑 · 石塔) → 大邱
  - 7.17 大邱 → 桐華寺(極樂殿基壇 · 塼 · 其他 遺物) → 銀海寺(居祖庵靈山殿 · 三尊佛 · 石塔) → 慶州 → 石窟庵
- 다시 멤버를 交替하여 黃壽永 · 鄭明鎬 · 申榮勳 諸氏는

- 7/18 大邱↓高靈郡廳(石塔·石燈·佛像)↓高靈農高(石塔·其他石造物·磁器類)↓月光寺址↓海印寺(大藏經閣)
- 7/19 海印寺↓清涼寺(佛像臺座·塔·石燈·基壇)↓靈岩寺址(石塔·石燈·龜趺·築臺·基壇·臺座等과 石柱)↓高靈邑內幢竿支柱↓大邱
- 7/24 慶州博物館·石窟庵 出土瓦類 調査(申榮勳 鄭明鎬)
- 7/27 8/4 佛國寺 大雄殿 極樂殿 觀音殿 毘盧殿 白雲清雲 蓮花 七寶橋檢尺(申榮勳 鄭明鎬)
- 三、來窟人士
- 7/20 道文化係長 7/21 道知事 7/27 慶州市長 道文化課長 7/31 梨大 秦弘燮 金成俊 教授 同大學 博物館 姜敬淑 金和英 朴日薰 8/1 國博 尹武炳氏 8/4 國博 崔淳雨氏

## 네른의 李朝童子像

崔 淳 雨



本彫의 李朝童子像은 國內에 아직 도 조그마한 作品들이 남겨져 있고 또 런던의 大英博物館에도 좋은 作品이 展示되어 있지만 西獨 崔른市에 있는 東洋博物館所 藏의 童子像처럼 크고 잘된 것은 그 예를 본일이 없다. 통나무 松材로 받침까지 붙쳐서 하나로彫刻한 이 童子像은 전체 크기가 九三cm 몸만 八五cm이니 이러한 童子像으로서

— 第四卷 第九號 通卷三十八號 —

는 最大級の 作品이라고 할만 하다. 고개를 약간 바른쪽으로 돌려서 입가에는 가냘픈 미소를 풍겼고 두 다리는 조금 벌린채 가슴에는 큰 새를 한 마리 안고 있는데 새를 안고 있는 두 손이 정중하게 포개져 있는 것을 보면 안겨져 있는 새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원래 새는 앞을 바라보며 안겨져 있지만 새의 목이 떨어져 나가서 새가 무슨 새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고 반쯤 펴고 있는 두 쪽이지만 보면 매 같은 느낌도 있으나 봉황새 꼬리같이 생긴 긴 꼬리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면 봉황새 같기도 느껴진다. 童子의 오른쪽 허리에는 큼직한 영남과 장도칼이 늦은막이 느러져 있으며 등 뒤로는 술이 많은 종각머리를 탐스럽게 파아내려서 붉은 멩기를 달고 있다. 앞으로 보면 안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허리에는 피자락이 피를 띠고 있음을 알겠고 두가랑바지의 아랫도리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져 있는 것이 마치 戲書와 같은 表現을 보여 微笑를 자아내 준다.

面相과 頭部의 前面에는 아마 補修의 자취인 듯 친을 바르고 그 위에 設彩를 했으며 등에도 原材가 터진 部分을 친으로 바르고 칠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原材의 보존상태로 보나 친으로 바른 面相의 솜씨로 보나 普通 흔하게 볼 수 있는 近世의 作이 아닐 것 같으며 적어도 十六、七世紀頃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李朝의 木彫佛像들에서 볼 수 있는 하잘것 없는 技巧나 品格에 비하면 이 童子像에는 李朝의 鄉土분위기가 假飾없이 純粹 素朴한 솜씨로 表現되어서 民藝의인 분위기를 구수하게 풍겨주고 있는데 그 出處는 알 수 없으나 二次大戰前에 이미 收藏된 것이라고 한다. 異例의인 이 作品의 由來에 關해서는 다른 知見이 없으나 흔히 國內佛敎寺刹에 남아 있는 小形 童子像과 比較하면 이 作品의 服飾과 表現이 너무나 民俗的이고 또 佛敎寺刹에서 볼 수 있는 結髮童子像과는 달리 멩기머리를 파아느린點等 原所在나 用途에 對해서 밝혀야 할點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